

개성공단 입주기업 70% '폐업위기' 줄도산 우려 현실화되나

123개 업체중 49곳 해당
 고용 포기·자산등 매각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2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 123개 업체 중 120개 업체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 5688억원, 유동자산 2464억원 등 총 8152억원의 손해를 봤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계산에 의하면 123개 업체 중 개성공단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해왔거나 생산시설 자체가 개성공단에 위치해있는 49개 업체는 도산 위기를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등 일부 상장사 10여개 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협회측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이 전체의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개성공단 폐쇄로 도산한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업체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1차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포기하고 이후 자산 등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나 둘 씩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장사들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에 비해 급증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쿠쿠전자의 경우 연간 생산 물량의 10%에 해당하는 96여만대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왔다.

쿠쿠전자는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 이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양산 공장과 인천 공장에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1분기 매출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생산 차질로 매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신원의 경우 총 생산량의 12%를 차지했던 개성공단 공장이 폐쇄되며 차질을 빚었다.

여성복 브랜드 '베스피엘리', '씨' 등을 보유한 신원은 그동안 매출 100억원 규모의 내수용 의류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왔다.

신원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해당 생산 물량을 필리핀, 중국 다롄 등으로 분산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신원도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많다.

집계되지 않는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 등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협력사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3개 입주기업과 거래를 하던 유통·서비스 협력업체 90여곳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 지급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회계당국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를 막고자 개성공단 기업이 가동 중단 사태로 입은 자산손실 규모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 주석에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인해 억류된 자산을 즉각 자산손실로 반영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생산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레포즈 용품 업체를 운영했던 기업 대표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27명의 우리나라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다면 당장 일괄 사직서라도 받고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옳은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 B씨는 "협력사에 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해 협력사도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자산손실 규모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실금액이 없는 것인가.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생각은 안하고 탁상 공론적 행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주 기자



쇼핑도 하고 죽도 받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유니클로 광화문 D-Tower점 앞에서 이연복 셰프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따뜻한 죽을 나눠주고 있다.

이주열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시장 불안시 정책수단 동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에서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높

아지겠지만 은행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우량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의 경영여건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은행들의 손실 흡수력이 양호한 상태이니까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부분

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꾸준한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되찾고, 실무부문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과 일부 부문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9조원 늘린 것에 대해서는 "5월부터 자금이 본격 집행된다"며 "이번 대출지원 확대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전북중기청,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월22일부터 5월11일까지다. 기업당 사업비는 1,300만원(정부지원금 910만원, 기업부담금 390만원)이며 기업진단, 과제도출 및 목표설정, 문제해결, 기술자산화, 성과측정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산업분류 중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innoskill.or.kr>)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44), 또는 전북중소기업청(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직능단체 워크숍 남원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현준)는 지난 22일 남원 지리산하이츠콘도에서 '2016 전북 중소기업인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두안정 전북중소상공인직능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12개 시군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인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내수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수출 활로 방안을 강구했다.

현준 전북지역본부장은 "이제는 내수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인들도 상호협력과 더불어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555! 릴레이 페스티벌'

정읍시가 직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이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특별이벤트를 갖는다.

이번 이벤트는 '555! 릴레이 페스티벌'로, 단풍미인쇼핑몰은 입점상품 2~3가지를 꾸러미방식으로 구성, 11개 세트를 제작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단풍미인쇼핑몰은 꾸러미상품 브랜드로 '정읍 내장산 외갓집 텃밭'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포장재 등도 별도로 제작했다. 시 관계자는 "순주와 손녀들을 위해 집 앞에 두고 조석으로 볼보던 외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정겨운

'내장산 외갓집 텃밭' 개발 기념일에 맞춰 일괄배송

텃밭과 정읍 농특산물의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단풍미인몰만의 꾸러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 등 기념일 내용에 맞게 구성돼 있다. 가격대는 1만오천원부터 4만원까지, 주문하면 원하는 기념일에

맞춰 일괄배송한다. 특히 전 상품 우체국택배 무료배송이고, 회원가입 구매고객에게는 구입 금액의 2%를 적립해준다.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 (www.danpoongmall.com)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gmail.com)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2012년 오픈한 단풍미인쇼핑몰은 연간 3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한해 10여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홍보·판매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공 전북본부, 멸종위기식물 사진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 멸종위기식물 사진 및 야생화분경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선나무, 석곡, 지네발란, 전주물피라폴 등 멸종위기식물 사진 200여점과 수목원에서 키우던 희귀 및 특산 식물들로 직접 제작한 삼 백초, 노랑부처, 독미나리 등 야생화 분경 100여점을 선보인다.

보는 즐거움과 함께 듣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27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수목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수목원 숲속 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음악회는 경상대 김병기교수 지휘아레 (사)함께 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현악4중주(Forest waltz 등 4곡), 금관5중주(Besame mucho 등 4곡), 독창(남이 오시는가 등 5곡)으로 구성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목원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우리 식물의 소중함과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 속 음악의 선율에서 소중한 추억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는 식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재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이벤트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새로운 '뉴스마트뱅킹' 출시를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6월말까지 'Welcome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 선보인 뉴스마트뱅킹은 스마트 계좌개설, 간편이체, 간편로그인 등 핀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서비스이다.

전북은행은 뉴스마트뱅킹에 가입하고 이벤트 응모를 신청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미니, 스마트워치,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매일, 매주단위 추첨을 통해 6월30일까지 증정할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